

청소년의 치매에 대한 지식과 태도

황은혜¹ · 김보경¹ · 김해린²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¹, 서울국제고등학교²

A Study on Dementia-related Knowledge and Attitudes in Adolescents

Hwang, Eunhye¹ · Kim, Bokyoung¹ · Kim, Haerin²

¹The Graduate School of Chung-Ang University, Seoul

²Seoul Global High School, Seoul, Korea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adolescents' knowledge and attitudes towards dementia and to provide basic data for educating about knowledge of dementia and strengthening positive attitudes towards dementia. **Methods:** This study used a descriptive research design. The subjects were 502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A questionnaire organized by 16 questions of knowledge and 10 questions of attitudes towards dementia was used. **Results:** The subjects' knowledge level of dementia was low, and average score was 8.89 ± 2.95 . The questions with low rate of correct answer were "Dementia is caused by several dozens of diseases such as internal medicine, neurology, psychiatry, etc.", "In spite of the dementia, patients can enjoy their favorite things." The subjects' average score of attitudes towards dementia was 3.72 ± 0.58 . Questions of negative attitudes were "I don't want to be closed to patients of dementia.", "I watch information or prevention about dementia in mass communications media." The relationship between dementia-related knowledge and attitudes showed positive correlation. **Conclusion:** The result means the mediation is necessary for improving dementia-related knowledge and strengthening positive attitudes in adolescents. The education programs should be proceeded to provide adolescents with correct information about dementia.

Key Words: Dementia, Knowledge, Attitude, Adolescent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치매란 기억장애와 인지장애에 해당하는 실어증, 실행증, 실인증, 수행기능장애 중 하나 이상의 증상을 동반하는 질환으로(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00), 만성적으로 진행하며 시간이 경과할수록 환자의 사회적 의존도가 매우 높아지는 질환이다. 보건복지부의 치매 유병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2년 65세 이상 노인의 치매 유병률은 9.18%로 약 54만 명으로 추정되었고, 이는 매 20년마다 2배 씩 증가하여 2050년에는 약 271만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2).

과거에는 치매 노인을 전적으로 가족이 부양했지만 사회가 핵가족화 되고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하면서 가족의 치매 노인 부양기능은 점차 약화되었고, 치매 노인의 부양 문제가 개인적인 문제에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Joo, 2004). 치매 노인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주요어: 치매, 지식, 태도, 청소년

Corresponding author: Kim, Bokyoung

The Graduate School of Chung-Ang University, 84 Heukseok-ro, Dongjak-gu, Seoul 156-756, Korea.
Tel: +82-2-820-5672-, Fax: +82-2-824-7961, E-mail: ilt10@hanmail.net

투고일: 2013년 10월 31일 / 수정일: 2013년 12월 4일 / 게재확정일: 2013년 12월 9일

가운데 앞으로는 치매 노인의 부양 문제를 포함한 치매와 관련된 다양한 사회 문제들이 발생할 것이다.

향후 발생하게 될 치매와 관련한 여러 사회 문제들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세대는 지금의 청소년들이다. 즉 이들은 성인이 되어 치매 노인을 부양하고 책임져야 하며, 그 시대의 치매를 포함한 노인 의료복지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Han, 2003; Lee, 2008). 그러므로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치매에 대한 지식과 태도는 향후 치매 노인복지의 방향과 정책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런데 전남의 한 노인요양시설에서 봉사 활동을 하던 고등학교 학생 두 명이 치매 노인에게 반말로 장난을 치는 동영상이 공개되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는 사건이 발생했다(The Chosun Ilbo, 2013. 5. 29). 이는 청소년들의 치매에 대한 지식 부족과 비윤리적이고 부정적인 태도가 어떤 행동 양상으로 표출되는지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사건이었다. 이 치매 노인 동영상 사건을 계기로 현 청소년들이 치매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떠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그 실태를 알아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태도는 행동의 근거가 되며, 이러한 태도는 지식의 영향을 받는다(Kim, Kim, & Sung, 2012). 이는 곧 청소년들의 치매에 대한 지식이 치매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며,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치매에 대한 지식이 높을수록 치매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나타난 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Cho, 1999; Kim et al., 2012; Lee, 2008). 청소년들에게 더 나은 지식과 긍정적인 태도의 함양을 위하여 청소년들의 치매에 대한 지식 수준과 태도에 대하여 알아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치매에 대한 지식과 태도에 관한 국내 연구는 주로 일반인(Cho, 1999; Han, 2004; Oh, 2002), 노인(Kim, 1999; Kim, 2009; Han, 1994), 간병인 및 요양보호사(Kim et al., 2012; Hwang & Jang, 1999; Noh, Lim, & Hur, 2012), 부양가족(Park, 2006; Yong, Kim, & Yang, 2010)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다. 국외 연구 또한 주로 일반인(Arai, 2011; McParland, Devine, Innes, & Gayle, 2012), 간호사 및 돌봄제공자(Kada, Nygaard, Mukesh, & Geitung, 2009; Yamamoto, Tamura, Deguchi, Ito, & Sugishita, 2000), 간호학과 학생(Scerri & Scerri, 2013)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 Lee (2008)의 연구가 있으나 이는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한 자원봉사 경험에 따른 치매에 대한 지식과 태도의 차이를 알아본 연구이며, Moon과 Pae (2007)의 연구는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치매에 대한 지식을 알

아본 연구로 일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치매에 대한 지식과 태도를 조사한 최근의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 청소년들의 치매에 대한 지식 정도와 태도에 대하여 알아보고, 특성에 따른 치매에 대한 지식과 태도의 차이 및 치매에 대한 지식과 태도와의 상관관계를 파악함으로써 향후 치매에 대한 지식 향상과 긍정적 태도 강화를 위한 교육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들의 치매에 대한 지식과 태도를 알아보고, 치매에 대한 지식 교육과 긍정적인 태도 강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청소년들의 일반적 및 치매관련 경험특성을 파악한다.
- 청소년들의 치매에 대한 지식과 태도를 파악한다.
- 청소년들의 일반적 및 치매관련 경험특성에 따른 지식과 태도의 차이를 분석한다.
- 청소년들의 치매에 대한 지식과 태도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치매에 대한 지식과 태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특별시 소재의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1개교와 경기도 소재의 고등학교 1개교에 재학중인 청소년들이다. 본 연구의 목적과 설문지의 내용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하기로 연구 동의서에 서명한 대상자 502명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대상자 수는 G*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출하였으며, ANOVA를 기준으로 유의수준 .05, 그룹은 최대 5개까지 확인한 결과 305명 이상의 표본을 확보한 상태에서 통계분석을 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연구도구

연구도구는 일반적 특성 4문항, 치매관련 경험특성 3문항,

치매에 대한 지식 16문항, 치매에 대한 태도 10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1) 치매에 대한 지식

Cho (1999)가 개발한 치매에 대한 지식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총 16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정답은 1점, 오답과 “모르겠다”에 응답한 문항은 0점으로 점수화하였다. 점수 범위는 최저 0점에서 최고 16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치매에 대한 지식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에 대한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위해 50명을 무작위로 선발하여 Pearson의 상관계수를 확인해 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치매에 대한 태도

Cho (1999)가 개발한 치매에 대한 태도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총 10문항이며 정서적 태도와 행동적 태도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치매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Cho (1999)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66$ 이었고,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5$ 였다.

4. 자료수집

자료수집은 2013년 9월 9일부터 2013년 9월 23일까지 이루어졌다. 대상자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였고, 연구에 자의로 참여함을 연구 동의서에 서명한 대상자에 한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대상자가 직접 기입한 설문지를 연구자가 회수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총 528부를 회수하였고 그중 응답이 불충분한 26부를 제외한 총 502부를 본 연구의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9.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치매에 대한 지식과 태도는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치매에 대한 지식과 태도는 t-test, ANOVA로 분석하였고, Tukey 방식으로 사후 검정을 실시하였다.

- 대상자의 치매에 대한 지식과 태도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6. 윤리적 측면

본 연구는 2013년 9월 5일 중앙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였다(승인번호 1041078-201308-HR-0059-02). 연구 동의서에 연구 목적을 제시하였고, 설문지 응답과 관련한 모든 사항은 코드화하여 익명으로 처리되므로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며, 개인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므로 결과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을 대상자에게 설명하였다. 대상자는 본 연구의 설문 조사 과정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자의로 연구에 참여함을 연구 동의서에 서명한 후에 참여하였다.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별은 남자가 319명(63.5%)으로 많았고, 지역은 경기도 214명(42.6%), 서울특별시 288명(57.4%)으로 두 지역이 비슷하였으며, 학년은 고등학교 1학년이 277명(55.2%)으로 가장 많았다. 종교는 없음이 255명(50.8%)으로 많았고, 치매 가족과 동거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40명(8%)이었으며, 치매 노인을 대상으로 봉사 활동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89명(17.7%)이었다. 학교에서 치매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87명(17.3%)이었다.

2. 치매에 대한 지식과 태도

대상자의 치매에 대한 지식 점수는 총 16점 만점에 평균 8.89 ± 2.95 점이었다(Table 2).

치매에 대한 지식 문항 중 정답률이 가장 높은 문항은 “규칙적인 생활과 신체 정기검사는 치매 예방에 효과적이다”(81.1%)였으며, 다음으로는 “치매 환자는 장소를 헤매며 사람을 못 알아본다”(78.7%), “나이가 들면 노화에 의해 누구나 치매에 걸린다”(77.3%) 순으로 정답률이 높았다. 정답률이 가장 낮은 문항은 “치매는 내과, 신경과, 정신과 질환 등 몇십가지 병에 의해 걸린다”(28.7%)였으며, 다음으로는 “치매에 걸려도 평소 좋아하던 일들을 즐길 수 있다”(33.7%), “치매에 걸릴 위

Table 1.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502)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Gender	Male	319 (63.5)
	Female	183 (36.5)
Region	Seoul	288 (57.4)
	Gyeonggi	214 (42.6)
Grade	1st grade of middle school	135 (26.9)
	3rd grade of middle school	58 (11.6)
	1st grade of high school	277 (55.2)
	2nd grade of high school	32 (6.4)
Religion	Yes	247 (49.2)
	No	255 (50.8)
Experience of living together	Yes	40 (8.0)
	No	462 (92.0)
Experience of volunteer	Yes	89 (17.7)
	No	413 (82.3)
Experience of educated	Yes	87 (17.3)
	No	415 (82.7)

힘은 나이에 비례한다”(39.0%), “치매는 유전적인 요인과 관련이 있다”(41.8%), “치매 노인을 위해서는 환경을 자주 바꾸어주면 도움이 된다”(41.8%) 순으로 정답률이 낮게 나타났다.

대상자의 치매에 대한 태도는 총 5점 만점에 평균 3.72±0.58점이었다(Table 3). 이 중에서 정서적 태도는 평균 3.79±0.74점, 행동적 태도는 평균 3.65±0.70점이었으며, 정서적 태도와 행동적 태도의 평균을 서로 비교하기 위해서 대응 t-test를 진행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3.50, p<.001$).

정서적 태도의 가장 낮은 점수 문항은 “치매 환자와 가능한 한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3.19±1.13)였고, 다음은 “가족 중 치매에 걸린다면 그 사실을 숨기고 싶다”(3.63±1.14)였다. 행동적 태도 중에서 가장 낮은 점수의 문항은 “마스크에서 치매에 관한 최신 정보나 예방법이 나오면 보게 된다”(2.91±1.15)였으며, 다음은 “치매를 진단할 수 있는 간단한 테스트를 받아보고 싶다”(3.51±1.10)였다.

Table 2. Frequency of Correct and Incorrect Answers on Dementia Knowledge (N=502)

Questions	Correct	Incorrect
	n (%)	n (%)
1 If getting old, anybody suffers from dementia by aging.	388 (77.3)	114 (22.7)
2 Dementia is a disease. [†]	383 (76.3)	119 (23.7)
3 Dementia is related to genetic factors. [†]	209 (41.6)	293 (58.4)
4 Dementia is related to drinking. [†]	221 (44.0)	281 (56.0)
5 Dementia is caused by several dozens of diseases such as internal medicine, neurology, psychiatry, etc. [†]	144 (28.7)	358 (71.3)
6 Men suffer from dementia better than women.	220 (43.8)	282 (56.2)
7 A danger of dementia is proportional to ages. [†]	196 (39.0)	306 (61.0)
8 Dementia patients remember recent matters rather than passed matters.	272 (54.2)	230 (45.8)
9 Dementia patients cannot recognize people by wandering the place. [†]	395 (78.7)	107 (21.3)
10 In spite of the dementia, patients can enjoy their favorite things.	69 (33.7)	333 (66.3)
11 It's impossible to discover dementia early.	306 (61.0)	196 (39.0)
12 Balanced meals with a few salts are effective to prevent dementia. [†]	344 (68.5)	158 (31.5)
13 Regular life and periodical physical examination are effective for the prevention of dementia. [†]	407 (81.1)	95 (18.9)
14 Some dementia can be cured. [†]	278 (55.4)	224 (44.6)
15 Dementia can be completely recovered by drugs.	321 (63.9)	181 (36.1)
16 It's helpful to change environment often for elderly with dementia.	210 (41.8)	292 (58.2)
Total score (M±SD)	8.89±2.95	

[†] Answer is "yes".

3. 특성에 따른 치매에 대한 지식과 태도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치매에 대한 지식과 태도는 Table 4와 같다.

대상자의 치매에 대한 지식 점수는 치매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대상자가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대상자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t=-3.50, p=.001$), 성별, 지역, 학년, 종교, 치매 가족과의 동거경험, 치매 노인 대상의 봉사활동 경험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대상자의 치매에 대한 태도는 성별, 지역, 종교, 동거경험, 봉사경험, 교육경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자보다는 여자($t=-4.61, p<.001$)가, 경기 지역보다는 서울 지역($t=-2.97, p=.003$)이, 종교가 없는 경우보다는 종교가 있는 경우($t=2.01, p=.044$)가, 치매 가족과의 동거경험이 없는 경우보다는 있는 경우($t=2.96, p=.013$)가, 치매 노인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한 경험이 없는 경우보다 있는 경우($t=2.34, p=.019$)가, 치매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경우보다 있는 경우($t=-3.02, p=.003$)에 치매

Table 3. Scores of Attitude toward Dementia (N=502)

Variables	Questions	M±SD
Emotional attitude	1 Dementia patients are felt as invalid existence. [†]	3.98±1.06
	2 Dementia is individual problem, not social problem. [†]	3.96±0.98
	3 I don't want to be closed to patients of dementia. [†]	3.19±1.13
	4 The aged with dementia are better to be died for their family. [†]	4.17±1.02
	5 If someone of my family gets dementia, I want to hide the fact. [†]	3.63±1.14
	Subtotal	3.79±0.74
Behavioral attitude	6 I want to take simple test for diagnosis of dementia.	3.51±1.10
	7 I think that it's important to be interested in dementia for general people.	3.77±0.96
	8 I watch information or prevention about dementia in mass communications.	2.91±1.15
	9 Professional facilities for treatment of dementia patients should be established more.	4.05±0.88
	10 Measures for dementia must be nationally taken.	4.01±0.91
	Subtotal	3.65±0.70
	Total score	3.72±0.58

[†]Reverse coding.

Table 4. Knowledge and Attitude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N=502)

Characteristics	Categories	Knowledge		Attitude	
		M±SD	t or F (p)	M±SD	t or F (p)
Gender	Male	8.83±3.00	-0.59 (.549)	3.63±0.59	-4.61 (<.001)
	Female	8.99±2.86		3.87±0.53	
Region	Seoul	8.95±3.06	-0.50 (.613)	3.79±0.58	-2.97 (.003)
	Gyeonggi	8.81±2.79		3.63±0.56	
Grade	1st grade of middle school	8.40±3.50	2.09 (.100)	3.65±0.61	1.67 (.172)
	3rd grade of middle school	8.97±2.94		3.72±0.51	
	1st grade of high school	9.03±2.69		3.77±0.57	
	2nd grade of high school	9.59±2.28		3.61±0.61	
Religion	Yes	8.75±2.98	-1.02 (.304)	3.77±0.57	2.01 (.044)
	No	9.02±2.92		3.67±0.58	
Experience of living together	Yes	8.98±2.67	0.18 (.850)	3.98±0.67	2.96 (.013)
	No	8.88±2.97		3.70±0.56	
Experience of volunteer	Yes	9.35±2.35	1.91 (.058)	3.85±0.58	2.34 (.019)
	No	8.79±3.05		3.69±0.57	
Experience of educated	Yes	9.70±2.20	-3.50 (.001)	3.89±0.55	-3.02 (.003)
	No	8.72±3.06		3.68±0.58	

에 대한 태도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4. 치매에 대한 지식과 태도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치매에 대한 지식과 태도의 상관관계는 Table 5와 같다.

치매에 대한 지식과 전체 태도와의 관계는 $r=.17$ ($p<.001$)로 미약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행동적 태도와 정서적 태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지식과 행동적 태도는 $r=.24$ ($p<.001$)의 약한 상관관계를 보였고, 정서적 태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Table 5. Correlations between Knowledge and Attitudes (N=502)

Variables	Emotional attitude	Behavioral attitude	Attitude, total
	r (p)	r (p)	r (p)
Knowledge	.03 (.393)	.24 (<.001)	.17 (<.001)

논 의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치매에 대한 지식과 태도가 어떠한지 파악하고, 특성에 따른 치매에 대한 지식과 태도, 치매에 대한 지식과 태도와의 상관관계를 알아봄으로써 치매에 대한 지식 교육과 긍정적인 태도 함양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자 중 치매 노인을 대상으로 봉사활동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17.7%, 치매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17.3%에 불과했다. Scerri와 Scerri (2012)의 연구에서 치매 노인을 돌봄 경험이 있는 대상자가 치매에 대한 지식과 태도 수준이 높았고, Lee (2008)의 연구에서도 치매 노인을 대상으로 봉사활동 경험이 있는 대상자와 치매에 대한 정보를 들은 경험이 있는 대상자가 치매에 대한 지식과 태도의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의 치매에 대한 지식 수준 향상과 긍정적 태도 함양을 위해서는 치매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고 봉사활동을 권장하여, 치매 노인을 가까이에서 돌보면서 치매에 대하여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대상자들의 치매에 대한 지식 수준은 일반인 대상의 Cho (1999)의 연구, 청소년 대상의 Lee (2008)의 연구와 비슷한 수준이었고, 요양보호사 대상의 Kim 등(2012)의 연구보다는 낮은 수준이었다. 정보화 사회를 살고 있는 현 청소년들의 치매

에 대한 지식 수준이 과거와 비슷하다는 것은 여전히 치매에 대한 정보와 교육 기회가 부족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요양보호사들이 다양한 매체로 교육을 받음으로써 치매에 대한 지식이 향상되었듯이(Kim et al., 2012), 청소년들에게도 치매 교육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치매에 대한 지식 문항 중 점수가 높은 문항은 “규칙적인 생활과 신체 정기검사는 치매 예방에 효과적이다”, “치매 환자는 장소를 헤매며 사람을 못 알아본다”, “치매는 병이다”였으며, 점수가 낮은 문항은 “치매는 내과, 신경과, 정신과 질환 등 몇십가지 병에 의해 걸린다”, “치매에 걸려도 평소 좋아하던 일들을 즐길 수 있다”, “치매에 걸릴 위험은 나이에 비례한다”, “치매는 유전적인 요인과 관련이 있다”이었다. 이는 대상자들 대부분이 치매는 병이라는 인식과 함께 치매의 예방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치매의 위험요인, 유전 가능성, 대표적 증상인 인지장애 관련 증상 등에 대한 지식은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앞으로 청소년 대상의 치매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이에 대한 내용이 충분히 다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대상자들의 치매에 대한 태도는 일반인 대상의 Cho (1999)의 연구, 청소년 대상의 Lee (2008)의 연구와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요양보호사 대상의 Kim 등(2012)의 연구,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대상의 Hwang (2013)의 연구보다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요양보호사를 포함한 노인요양시설 종사자들의 치매에 대한 태도가 보다 긍정적인 이유는 이들이 자격증 취득 과정을 통해 치매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게 되고, 실제 치매 노인을 돌봄 경험이 바탕이 되어 치매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Hwang, 2013). 이를 통해 청소년들의 치매에 대한 긍정적 태도 변화를 위하여 치매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과 봉사활동을 통한 치매 노인 돌봄 경험의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치매에 대한 정서적 태도 중에서 부정적인 태도의 문항은 “치매 환자와 가능한 한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 “가족 중 치매에 걸린다면 그 사실을 숨기고 싶다”였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치매에 대한 정서적 거리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치매에 대한 행동적 태도 중에서는 “매스컴에서 치매에 관한 최신 정보나 예방법이 나오면 보게 된다” 문항에 가장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치매에 대한 관심이 매우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Moon과 Pae (2007)의 연구에서 대상자들의 지식 수준이 본 연구결과보다 높았는데, 대상자들의 치매에 대한 인지 경로 중 68.5%가 대중매체를 통한 습득이었다. 그러므로 치매에 대한 지식 수준을 높이고 치매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청소년 대상의 치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흥미를 가질 수 있는 다양한 대중매체의 개발이 필요하다.

대상자의 치매에 대한 지식은 치매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에 지식 점수가 더 높았다. Kang, Chae, Seo와 Yang (2013)의 연구에서도 치매교육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대상자가 치매에 대한 지식 점수가 더 높았으며, Kim (1999), Hwang과 Jang (1999), Scerri와 Scerri (2012)의 연구에서도 치매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대상자가 지식 점수가 더 높았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의 치매에 대한 지식 수준 향상을 위하여 치매에 대한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보건 교육이나 특강 등을 통하여 치매에 대한 교육을 충분히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상자의 치매에 대한 태도는 학년을 제외한 모든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특히 치매 가족과의 동거경험이 있는 경우, 치매 노인 대상의 봉사활동 경험이 있는 경우, 치매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에 치매에 대하여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는 Lee (2008), Hwang과 Jang (1999), Kada 등(2009), Scerri와 Scerri (2012)의 연구결과와 비슷한 결과로 치매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치매 노인을 돌보는 경험이 치매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보여주는 결과이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이 치매 노인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봉사활동을 권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상자들의 치매에 대한 지식과 전체 태도와의 관계는 미약한 상관관계를 보였고, 행동적 태도와 정서적 태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지식과 행동적 태도에서 약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Kang 등(2013), Cho (1999), Hwang (2013), Kim (1999)의 연구에서 치매에 대한 지식과 태도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 결과에 비하여 본 연구에서는 낮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성인을 대상으로 시행한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본 연구의 대상자는 학교에서 교사의 지도하에 있는 청소년이었기 때문에 치매에 대한 태도에 관하여 솔직한 응답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 지식과 태도를 측정할 도구의 신뢰도가 낮은 것이 원인일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치매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치매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그 상관관계가 낮았으므로 청소년들에게 치매 교육 프로그램 제공시 치매에 대한 지식과 태도에 관한 내용이 함께 구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청소년들의 치매에 대한 지식 수준 향상과 긍정적인 태도 함양을 위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치매에 대한 지식 수준 향상과 긍정적인 태도 강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결과 청소년들이 치매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에 치매에 대한 지식 수준이 높았으며, 치매 가족과의 동거경험, 치매 노인 대상의 봉사활동 경험, 치매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에 치매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치매에 대한 지식과 전체 태도는 미약한 상관관계, 지식과 행동적 태도는 약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치매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과 치매 노인을 가까이에서 돌볼 수 있는 봉사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청소년들이 치매에 대한 바른 지식과 긍정적 태도를 갖도록 함으로써 장차 우리나라의 치매 관련 의료 복지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향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치매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여 보고, 치매에 대한 지식과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효과를 입증하는 연구를 제안한다.

REFERENCES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00).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4th ed.). Washington, DC: Author.
- Arai, Y. (2011). Knowledge and attitude towards dementia among the general public in Japan. *Asian Journal of Psychiatry*, 4(Suppl 1), S8. [http://dx.doi.org/10.1016/S1876-2018\(11\)60033-6](http://dx.doi.org/10.1016/S1876-2018(11)60033-6)
- Cho, H. O. (1999). *A study on public's knowledge of and attitude towards dementia*.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 Han, D. H. (1994). A study of the elderly attitude toward senile dementia.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14(1), 69-83.
- Han, J. R. (2003). Youth's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23(4), 181-194.
- Han, J. S. (2004). *A study on the relation between recognition and attitude about dementia*.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sun University, Gwangju.
- Hwang, E. H. (2013). *Knowledge and attitude about dementia of the workers at the elderly care faciliti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 Hwang, S. Y., & Jang, K. S. (1999). A study on the levels of de-

- mentia-related knowledge, attitude, and practice among nursing assistants caring for institutionalized elders with dementia.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11(3), 378-388.
- Joo, H. S. (2004). *Research on social problems with dementia and solutions for improvement: Concentrating on public understanding of dementia*. Unpublished master's thesis, Incheon University, Incheon.
- Kada, S., Nygaard, H. A., Mukesh, B. N., & Geitung, J. T. (2009). Staff attitudes towards institutionalised dementia residents. *Journal of Clinical Nursing*, 18(16), 2383-2392. <http://dx.doi.org/10.1111/j.1365-2702.2009.02791.x>
- Kang, H. Y., Chae, M. J., Seo, H. S., & Yang, K. M. (2013). The effect of dementia education program o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9(1), 69-77. <http://dx.doi.org/10.5977/jkasne.2013.19.1.69>
- Kim, J. O. (2009). *Knowledge and attitude about dementia of the elderly in rural and urban*. Unpublished master's thesis, Keimyung University, Daegu.
- Kim, K. A., Kim, K. A., & Sung, M. R. (2012). A study on the level of dementia-related knowledge and attitude among care workers - focusing on the care workers who got education on dementia in Seoul dementia center. *Korean Journal of Care Management*, 6(6), 23-51.
- Kim, N. C. (1999). A study on the knowledge and attitude about senile dementia of the elderly. *Journal of Korea Community Health Nursing Academic Society*, 13(2), 1-11.
- Lee, D. Y. (2008). *Adolescent's knowledge and attitude toward dementia*.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 McParland, P., Devine, P., Innes, A., & Gayle, V. (2012). Dementia knowledge and attitudes of the general public in northern Ireland: An analysis of national survey data. *International Psychogeriatrics*, 24(10), 1600-1613. <http://dx.doi.org/10.1017/S1041610212000658>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2). *Nationwide study on the prevalence of dementia in Korean elders*. Seoul: Government Printing Office.
- Moon, K. N., & Pae, H. S. (2007). A study on middle school students' recognition level for dementia and necessity of school health education.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School Health Education*, 8(2), 19-34.
- Noh, J. H., Lim, E. J., & Hur, J. (2012). The factors influencing careworker's care performance for elders with dementia.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6(3), 75-84. <http://dx.doi.org/10.12811/kshsm.2012.6.3.075>
- Oh, M. J. (2002). *The study on the understanding of dementia in Korean socie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University, Seoul.
- Park, J. S. (2006). *A study on elderly daycare users' family caregivers' knowledge of and attitude towards dementia*.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hee University, Seoul.
- Scerri, A., & Scerri, C. (2013). Nursing students' knowledge and attitudes towards dementia- A questionnaire survey. *Nurse Education Today*, 33(9), 962-968. <http://dx.doi.org/10.1016/j.nedt.2012.11.001>
- Video Shooting and Curse to the Elderly... Spread of Immoral Play. (2013, May 29). *The Chosun Ilbo*, p. A11.
- Yamamoto-Mitani, N., Tamura, M., Deguchi, Y., Ito, K., & Sugishita, C. (2000). The attitude of Japanese family caregivers toward the elderly with dementia.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Studies*, 37(5), 415-422. [http://dx.doi.org/10.1016/S0020-7489\(00\)00021-3](http://dx.doi.org/10.1016/S0020-7489(00)00021-3)
- Yong, M. H., Kim, E. J., & Yang, Y. A. (2010). A study on the knowledge of families with demented elderly persons for dementia. *The Journal of Korea Association Occupational Therapy Policy for Aged Industry*, 2(2), 41-50.